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17일)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文정부 불교차별에 준엄한 경종 울린다

1.21 전국승려대회 당위성과 지향점

1월 21일 개최될 전국승려대회는 단순한 규탄의 장이 아니다. 우리사회 속 종교로 인한 갈등을 완전히 종식시켜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전환점이다. 전국승려대회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편집자주〉

신성민 · 송지희 · 임은호 기자

"종단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승려대회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1월 13일 열린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범대책위원장인 원행 스님의 모두 발언 중 일부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1월 21일 개최되는 전국승려대회의 진행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승려대회의 시작은 오후 2시 전국 사찰이 일제히 타종하며 시작된다. 타종은 육바라밀의 의미를 담아 6번 이뤄진다. 대회에서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의 교시도 발표될 예정이다.

매서운 추위와 동안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스님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이뤄진 종교편향과 차별, 불교왜곡에 준엄한 경책을 내리기 위해서다. 사태의 발단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불교폄훼 망언이었다. 불교계는 정 의원의 망언 직후 수차례에 걸쳐 참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댓글 여론'을 운운하며 조롱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 활성화 캠페인'이었다. 정부가 나서 '공공선교'를 자임한 것이었다. 즉각 불교계는 반발했고, 결국 황희 문체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했지만 캠페인은 중단하지 않았다. 불교계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등은 여러차례 소통행보를 이어갔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공공영역에서 나타난 종교편향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1945년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기독교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당시부터,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 · 종교차별은 예견돼 왔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의식구조는 '종교 인권 감수성'의 미비로 이어졌고, 정권마다 각종 편향 정책을 야기했다.

종교편향에 대해 인내했던 불교계의 분노가 1차로 폭발한 사례가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8.27범불교대회였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지만, 공공영역에서의 종교편향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청래 불교폄훼 망언 시발점
늑장 · 일방적 사과 분노 확산
캐롤 통한 공공선교 나오면서
반세기 이뤄진 종교편향 반발

'종교감수성' 낮은 韓사회 정서
공공 부문 종교편향 악습 키워
종교편향 바로잡는 건 파사현정
종교감수성 확산 계기 만들어야

다종교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편향으로 인한 갈등은 사회 화합의 저해 요소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종교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낮다. 이는 한국사회의 종교편향이 대부분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가질 때 나타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행정수장인 대통령의 종교가 문화의 영역으로 파고들며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이뤄진 '캐롤 활성화 캠페인'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문체부는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연말연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문화적 방안으로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종헌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승려대회는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뤄진 종교편향 행위에 내리는 준엄한 경책의 죽비다. 사회의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파사현정의 전법행"이라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의 소임자들이 헌법에서 규정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종교중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종교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 한국불교 자주화'를 대회의 기치로 내건 만큼,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응과 '종교 인권 감수성'에 대한 사회 여론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 사회에의 종교편향과 종교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교 인권 감수성'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적직무에서의 차별적 언행이 어떤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종교편향 · 차별 행위가 근절될 시 사회통합과 갈등해소라는 실체적 이익이 실현될 것임을 알려야 할 것"이라며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가 단일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사회,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종교감수성을 제고하고 제도화는 물론, 교육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지 특집 섹션 8면 발행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



조계종은 1월 11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조계종 제공

"동체대비 실천으로 불국토 구현"

조계종, 1월 11일 동화사서 신년하례 법회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불기 2566(2022)년 임인년 새해 국민에게 희망을 전했다.

종정 진제 대종사는 1월 11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불 앞에서 열린 신년하례 법회에서 법어를 통해 "임인년 새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으로 국민의 가슴마다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이날 법어에서 진제 대종사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 질병 공포와 고통은 인간의 자만심으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며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만유동일체(萬有同一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이 동일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어 동체대비의 비원(悲願)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이 한 가족이 되고 세계가 다정한 지구촌이 될 것"을 발원했다.

진제 대종사는 또 유마거사의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라는 대자대비 가르침을 인용하며 "새해에는 종교와 이념, 남녀와 세대, 계층과 빈부를 초월해 모두가 보살심을 가져 개개인이 행복하고 세상이 화평하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종단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그동안 종정예하께서 법력을 널리 그리고 깊게 드리워주셨기에

원로의원 등 종단 150명 동참해
진제스님 "동체대비 실천" 강조
원행 스님 "종교편향 바로 잡아
교단의 자존감회복 · 종단 화합"

종단은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국제적 위기상황에도 도량 청정과 종도의 안녕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사람은 오고감이 있으나 법은 여여하게 상주하니 종정예하께서 밝혀주신 투철한 법안은 길이길이 후대 명성이요 지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종교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자후를 내려달라고도 했다. 원행 스님은 "최근 정부 여당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으로 말미암아 정법수호 결의가 전국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전국승려대회와 불교도대회를 통해 정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종교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정예하께서 세간과 출세간을 진동시키는 큰 사자후를 내려주시기를 앙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납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 모두는 종정예하와 원로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교단 자존을 회복하고 종단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며,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야외에서 봉행됐다.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를 비롯해 학산 대원 대종사, 일응 지성 대종사, 지하 법융 대종사, 상월 보선 대종사 등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과 명예원로 송암 혜승 대종사, 금성 명선 대종사, 밀운 부림 대종사, 임담 의현 대종사 등이 참석했다.

또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2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 및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12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3월 4일(금)

제4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8일(금)

제4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1일(금)

제5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2년 2월 14일(월) ~ 3월 18일(금)

(평생교육기관)
대원아카데미
2022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2년 2월 3일 ~ 2월 28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원격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2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2년 2월 3일~ 2월 28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강의 영상 제공함.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공모 내용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